**보내는 선교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동역자님들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여기도 이번주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은 과거가 되었고 9개월의 고민과 기도가 되었던 파송 단체의 문제는 주변의 몇몇 분께 상황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본부 방문은 대표 선교사와의 저녁식사 시간에 대표의 심장 스텐트 시술 이야기를 듣고 저의 근황을 간단히 얘기하고 본부는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의탁하고 돌아섰습니다. 본부를 서울에서 공주로 옮기고 10년 이상 본부간사로 섬기고 있는 후배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저리고 아파서 다음날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길 기도제목으로 남깁니다.

* 사단법인과 GO 대표로 20년을 한 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데 역할을 분담하도록
* 사단법인 이사 선임에 현장 사역자들이 포함되어 해외선교를 위한 법인 운영이 되도록
* 전체 선교사 회의가 2015년 후 수년째(만8년) 열리지 않았는데 2년에 한번씩 전체 선교사 모임과 간사들의 선교사로 허입과 파송을 위한 위원회가 사역자를 포함해서 구성되도록
* 사단법인 운영을 위한 전문 사무직원 채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 결산 회계보고서를 사역자들도 서면으로 공유할 수 있기를
* 해외 파송 단체와 해외 사역자들을 위한 우선 순위가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본부의 간사들의 공동체생활은 단기로 기간을 정하여 말씀과 전도, 기도에 균형을 갖고 본부가 선교사 파송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는 12월 중순부터 거주비자 연장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6개월 연장을 받아서 짧은 시간 안에 또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번주는 몇 년 전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시민권에 대해 알아보러 이민국, 인구관리과 등을 다녔는데, 현재 받고 있는 관광비자는 법이 바뀌어서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1억 이상의 주택 소유자, 5년 이상의 취업 비자, 현지인과의 결혼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만 듣고 힘이 빠져 돌아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ㅊ 지역의 기술고등학교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교장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학교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면 한국어와 한식, 그리고 이곳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인들에게 공급할 채소를 생산하는 일과 이번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메주콩, 팥, 들깨씨를 내년에 심을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관광비자로 1년을 연장을 받고 추후에 주께서 원하시면 학교에서 취업비자의 길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3주간의 한국 일정을 보내고 돌아온 사역지는 시차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적응의 시간과 공백의 시간만큼 소원해진 영혼들과 ㅊ, ㅇ 지역에 심은 둔 농작물이 저의 손길을 필요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무를 뽑으러 가고 주변의 사역자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학교 농업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한국에서는 쉽게 구하지만 이곳에 없는 채소들을 키워서 요리하고 현지인들에게도 나누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고춧잎과 무청, 고구마순 등의 식자재를 활용하기를 당부합니다.

12월 17일 화요일 하루 동안 ㅊ 지역의 여자기술고등학교 조리학과 교사 S의(에르진잔 사라의 옛날 동료 교사) 요청으로 한식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식 이론과 재료소개의 시간과 실습은 ‘만두(편수, 규아상, 김치만두)를 준비하고 있는데, 순적하도록 또한 학생들과 교사들이 제가 믿는 예수님,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를 부탁합니다.

2주전 자동차 겨울 타이어 교체하러 가서 새롭게 연결된 영혼은 시청공무원으로 55세의 미혼 여성으로 기다리는 동안 교제하면서 제가 예수 믿고 사람이라고 나누면서 회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구원자가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정교회와 카톨릭 교회를 좋아하고 말씀(?)을 나누는 페이스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주말에 이 영혼의 집에 그 동안 교제하고 있었던 자동차 회사 여직원과 함께 초대를 받았는데, 주께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이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도록 간구해 주세요.

성탄절을 영혼들과 함께 보내고자 준비합니다. 제가 초대하기도하고 교제하는 영혼들의 집에 방문도 하고자 가져갈 선물도 준비하는데(성경, 건과일, 고구마 말랭이, 한국서 가져온 소품 등) 성령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2024년 사역계획을 하면서 하반기부터 장기 안식년을 갖고자 파송 교회의 허락을 받았는데, 막상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물가 인상으로 내년의 제 후원금으로 이 도시에 거주할 수 있을지? 차량운행은 가능할지? 5월 집세 인상금액에 따라 이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월에 거주비자 연장을 받고 나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곳까지 올해도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교회들과 동역자님들께도 전쟁과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의 영혼들에게 임마누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23. 12. 2. 김에스더 드림